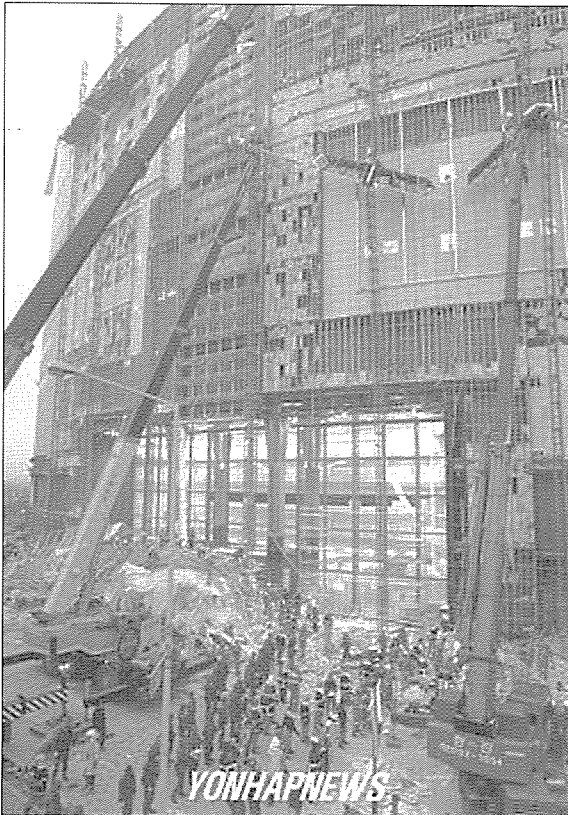


# 정리정돈은 안전의기본

## 1. 서언

2004년 6월말 산업재해현황(한국산업안전공단)을 살펴보면 건설 현장의 사고가 전체 산업재해의 21%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건설업의 특수성으로 다양한 공종별로 작업을 진행하다 보면 사고발생 확률이 높은 이유이다. 작업내용별 주요원인으로는 마감작업이

사진1. 가시설물 붕괴사고



35.2%, 철근 콘크리트 작업이 27.7%, 가시설물 설치 해체 작업이 19.5%를 차지하였다.

주요 불안정한 상태 요인은 방호조치 부적절이 51.3%, 작업통로 등 장소 불량 및 위험이 25.3%, 보호구 착용상태 및 성능불량이 5.8%로 나타났다. 특히 작업통로 등 장소불량 및 위험이 높게 나타나, 작은 관심만으로도 재해율은 크게 감소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정리정돈이다.

정리정돈이란 필요한 물건과 불필요한 물건을 분류하여 불필요한 것은 처분하고 필요한 것은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정리정돈 잘된 곳에 안전사고 사라진다.」, 「정리정돈은 안전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10조

#### 〈관리감독자의 업무내용〉

1. 사업장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전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당해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당해 작업의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의 확인·감독
5. 당해사업장의 안전보건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기타 당해 작업의 안전, 보건에 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기본이다」 등 건설현장 내외에 걸려있는 현수막 중 제일 많은 항목이 바로 정리정돈에 관한 내용이다.

하지만 정리정돈 미흡으로 인한 사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가장 손쉽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수칙을 지키지 않아 근로자의 사고를 유발한다면 안타까울 따름이다. 특히, 재해의 증가에 따라 많은 건설현장에서는 다양한 안전 활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안전의 기본은 정리정돈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정리정돈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 2. 정리정돈

### 2.1 정리정돈의 중요성

정리정돈의 중요성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도 잘 설명되고 있다. 시행령 10조 「관리감독자의 업무 내용」 중에는 관리감독자가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의 확인·감독을 하여야 한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리정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1. 호이스트내 정리정돈 미흡



사진2. 공구류의 정리정돈



사진3. 안전통로에 설치된 안전표지



사진4. 주차장내의비상구 표시

또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작업장의 바닥 등에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을 안정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할 것을 기준(안전기준 제3조, 작업장의 바닥)으로 정하는 등 통로에 관한 사항에서도 정리정돈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으며, 통로에 관한 사항 및 기계·기구에 관한 사항에서도 정리정돈의 중요성을 새삼 강조하고 있으며, 사업주 및 관리자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작업을 할 수 있게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 2.2 건설현장내 정리정돈

(1) 원재료, 반제품, 완제품, 운반도구, 공구류 등에 대하여 보관장소와 보관방법, 적제방법 등을 미리 사전에 정하여야 한다.

특히, 사진 1과 같이 근로자의 대기가 많은 호이스트 주변이나 동선이 빈번한 장소에서의 정리정돈은 대단히 중요하다. 근로자가 통행시 걸려 넘어져 다칠 위험이 존재하는 것은 즉시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진5. 위험물 물질 정리장은 불량

사진 2는 공구류의 정리정돈이 양호한 실례이다. 설비배관 작업을 수행하면서 작업전 및 작업중의 정리정돈이 잘되어 공구류의 찾는 시간을 줄일 수 있어 작업의 진행속도를 단축할 수 있다.

(2) 지하실 및 주차장의 조명은 매우 어두운 곳이 많이 있다. 특히, 화재 및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시 어두운 통로를 찾기에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통로, 출입구 및 비상구에는 근로자가 걸려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통행에 방해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다.

(3) 위험물, 위험물외의 인화성 유류 또는 가연성 분진이 존재할 우려가 있는 배관, 탱크 또는 드럼통의 용기에 대하여 미리 위험물 등을 제거하는 등 폭발이나 화재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진 5는 인화성, 폭발성 등의 물질을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는데 보관 및 정리정돈 불량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위험물 저장소의 위치는 환기가 충분하며 습기가 적은 곳 이여야 하며, 저장장소 부근에서는 근로자의 금연 등 부주의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또한 적합한 용량의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하며 지정된 관리책임자가 항상 관리하여야 한다.

### 2.3 정리와 정돈

정리란 사용하는 물건과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구분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물건을 즉시 없애는 것이며, 정돈이란 필요한 것을 사용

하기 편리한 장소에 안전한 상태로 깨끗하게 수납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정리와 정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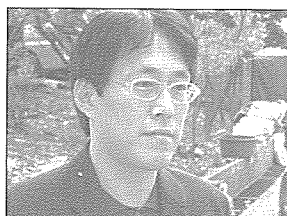
- 불필요하게 되면 즉시 처분한다.
- 버리는 장소를 정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버리는 장소를 구분하여 정한다.
- 불요품, 불급품, 필요품에 대한 판단을 관리 감독자가 즉시 결정하여 처리한다.
- 정리가 잘못되면 어떤 낭비가 발생되는가를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 모두 숙지한다.

#### (2) 정돈

- 정돈의 규칙을 정한다. 표시의 방법, 보관의 방법, 보관 전 취급의 방법에 대한 규칙을 정한다.
- 항상 관리감독자는 정돈에 대한 관심을 갖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 정돈이 잘못되면 어떤 낭비가 발생되는가를 알도록 한다.

### 3. 결론

건설재해 형태별 발생 유형을 살펴보면 추락, 붕괴·도괴, 낙하비레, 감전 순으로 발생되고 있다. 특히, 추락 및 낙하 사고 유형을 분석하다보면 어처구니 없는 사고 사례가 발생되어 안타까울 나름이다. 대형 건설회사에는 재해율을 감소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지만, 거창한 계획보다는 안전의 기본인 정리정돈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특히 작업전, 작업중, 작업후 정리정돈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지만 특히, 작업후 정리정돈을 추천하고 싶다. 일일 작업의 마지막에 근로자는 자신이 했던 일을 마무리 하고, 관리감독자는 근로자와 함께 확인하고 마무리 하는 것을 생활화한다면 안전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사료된다. 「정리정돈은 안전의 기본이고, 정리정돈이 잘된 현장은 품질이 확보된다」 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하자.



+오 형 국

우리협회 기술지도부, 건설안전기술사